제182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4.1.7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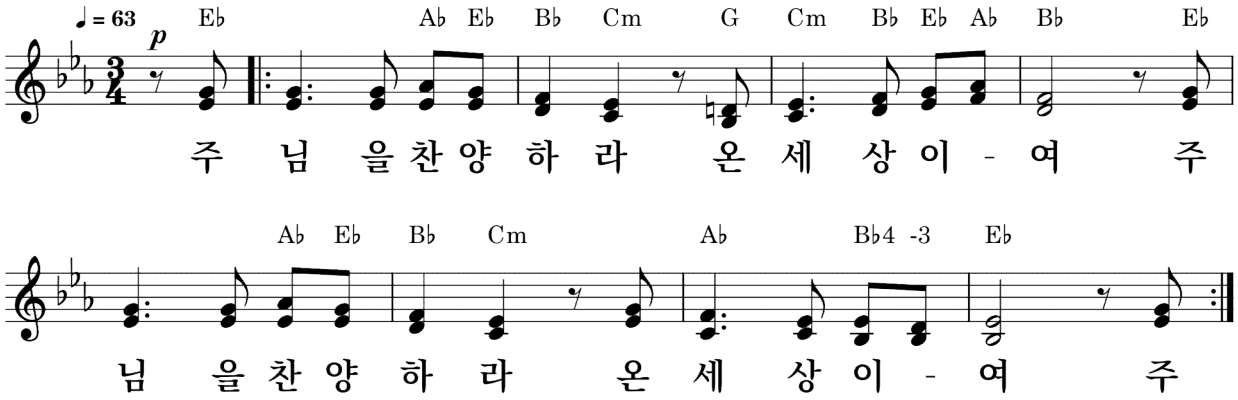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입례송 ····· **〈주님을 찬양하라〉** ····· **다같이**



성시 교독 ····· **〈빌립보서 4장〉** ····· **다같이**

(인도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도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도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도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성도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인도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회 기도 ····· **〈나,이웃,교회,나라,세상〉** ····· **다같이**

사죄의 확신 ·····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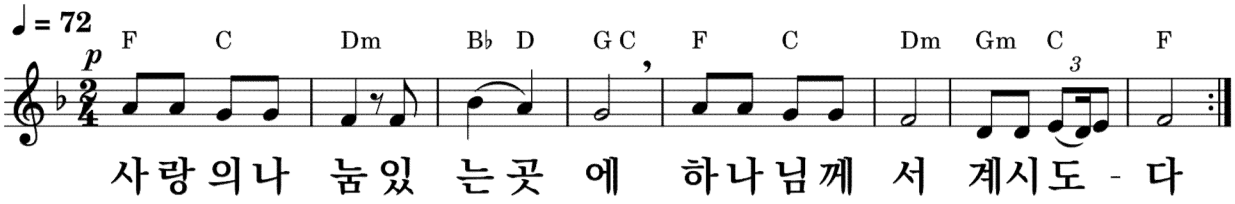
말씀 교독과 듣기 ····· **〈마태복음 6:5-18〉** ·····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 **다같이**

말씀 권면 ·····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 **다같이**

응답의 찬양 ····· **다같이**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 **다같이**

응답과 축복

✞감사 찬양 ····· **〈감사하여라〉** ····· **다같이**

✞결단과 축복 ·····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감사노트

성경말씀 메시지

(마6:5-18)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6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7-13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 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세 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14-15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16-18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에는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유명해질지 모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너희가 내면의 훈련에 들어가려거든,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여라.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이 보상해 주신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마 6:5-18]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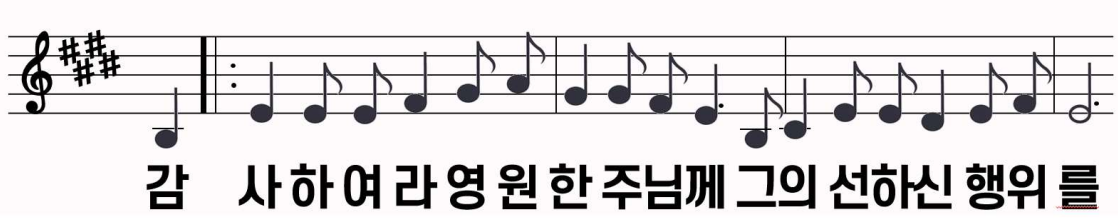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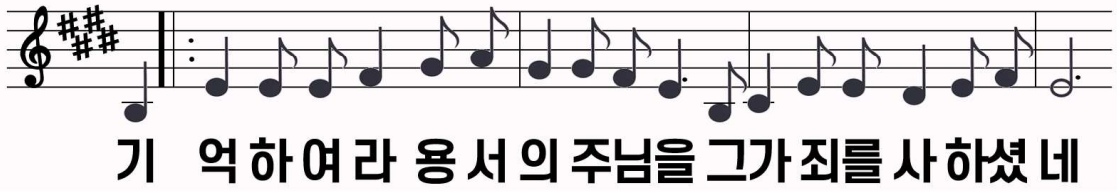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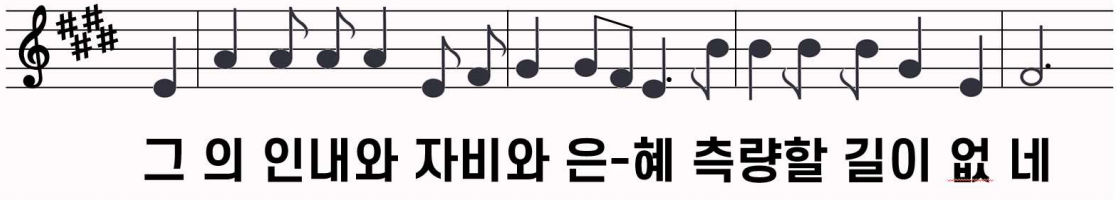
말씀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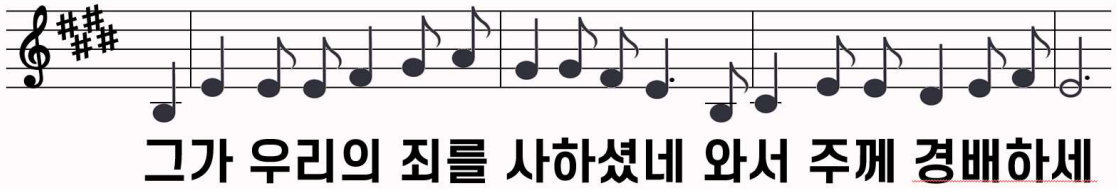
감사찬양

감사하여라


감 사하여라 영원한 주님께 그의 선하신 행위를


기 억하여라 용서의 주님을 그가 죄를 사하셨네


그의 인내와 자비와 은-혜 측량할 길이 없네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네 와서 주께 경배하세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3:0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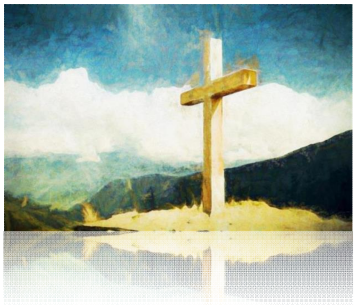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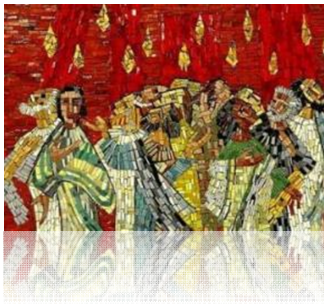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묵상질문

성도들과 말씀묵상나눔 시간을 가질때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1.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게 감동이 오는 부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정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주제든 어떤 내용이든 편하게 나누어주십시오.
2.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돼'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나누십시오.
3. 내가 말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남이 말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시간만큼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말할때 다른 행동을 삼가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4. 하나님이 예배중 어떤 시간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들을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묵상 참고 질문]]

✞ 오늘 말씀에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7)

✞ 내 기도 생활과 오늘 주님이 교훈하신 기도 생활을 비교해보고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보십시오.

✞ 14절에서 우리의 용서의 전제조건은 우리 역시도 남을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 오늘 말씀을 통해 감동받은 부분이나,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성경통독 (50일 신약성경통독)

1월1일부터 <갓피플성경앱>으로 신년 성경통독을 진행중입니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중무장하고 나아갑시다.

새로운 변화

매월 첫주에 이건명 집사님이 찬양인도를 맡아 진행합니다.
조성권 형제가 올해부터 찬양팀 기타로 참여합니다.
매월 한 번 예배시간 중 성도들의 말씀 묵상 나눔이 있습니다.

길목교회 예배당 〈화요일, 금요일〉 오픈 안내

올해부터는 성도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교회를 개방합니다. 일상적인 방문과 사용이외에 특별한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권종신 사모에게 문의주세요.
화 - 도심속 기도원 프로그램(기도 장소로만) / 금 - 일상적인 목적으로 편리하게

새해맞이 강화도 성지탐방

일시: 1월21일 주일 오후 2시 - 7시 (함께 식사 후 마칩니다)
회비: 식사비 1만원씩 지참
강사: 임경묵 목사 (국내 성지순례 전문가)

식사 섬김 안내 (감사한일, 특별한날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세요)

* 1월28일 식사 섬김 - 이춘원 집사님, 정지혜 집사님 가정
* 2월18일 식사 섬김 - 조건형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가정
* 3월24일 식사 섬김 - 유창호 집사님

기부금 영수증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하루안에, 우편은 3일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해외 사역

1월8일(월)~19일(금) : 순천강남중앙교회, 그리스-터키 12일 성지순례 인도